

근대국가의 형성, 민족주의, 그리고 고고학*

- 그리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 대 연**

[국문초록]

서양 근대 학문으로서의 고고학은 유럽 근대국가의 성장 및 민족주의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성립되었다. 유럽 국가들에서 고고학이 현실정치와 연관되어 발전했음은 분명한 사실인데, 흥미롭게도 그 관계맺음의 양상은 나라마다 다르다. 이에 본고에서는 오스만제국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새롭게 근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해야 했던 그리스에서 고고학이 어떻게 국가형성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근대국가, 민족주의, 그리고 고고학의 상호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국가적 정체성의 확립이라

* 이 논문은 2014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의 내용 일부는 제41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회의 <신화의 역사화: 반성과 비판을 통한 새로운 진전> 중 <고고학 자료를 이용한 근대 민족국가의 과거 재구성-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에 구두 발표되었음을 밝혀 둔다. 조대연(2014), 『고고학 자료를 이용한 근대 민족국가의 과거 재구성-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회 제 41회 학술회의 - 신화의 역사화: 반성과 비판을 통한 새로운 진전』, 한국상고사학회.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부교수

주제어: 고고학, 그리스, 근대국가 형성, 민족주의, 정체성, 베르기나의 별
Archaeology, Greece, establishment of the modern state, nationalism, identity, star of Vergina

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그리스 고고학이 어떻게 성립되고 성장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국가 정체성 확립과 관련해서 고고학적 유적의 복원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20세기에 들어와서 대외 전쟁과 정치적 격변에 따른 그리스 고고학의 대응과 마케도니아와 베르기나의 별(Star of Vergina)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그리스 고고학의 현 단계를 검토하였다. 그리스 고고학의 형성 및 전개과정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는 한국 고고학의 현재적 모습을 반성적으로 검토하는데 있어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한국고고학에서는 한민족의 기원 문제, 고대 국가의 성립과 영역화 과정 연구 등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민족주의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유럽과는 상이한 국가형성 과정과 수십 년간 지속된 남북분단의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 고고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평가해야겠지만, 이로 인해 발생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 성찰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 고고학의 사례는 유용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머리말

고고학이라는 학문은 19, 20세기에 들어와 유럽 근대국가의 성장 및 민족주의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성립되었다. 유럽의 국가들이 사회·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서로 상이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만큼, 고고학의 입지도 국가별로 사뭇 달랐다. 하지만 고고학은 국가의 기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정체성의 확립이나 고취에 기여했고, 이런 점에서 국가형성의 유용한 도구로 보편적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국가란 단순히 통치를 위한 제도나 조직일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에 의해 체감되고 상상되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¹⁾ 고고학이 근대

1) B. Anderson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pp. 49-50.

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분명해진다.

흥미롭게도 유럽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을 보면, 개별 국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립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정체성의 요소들을 부각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고고학이 국가의 형성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는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본고에서는 특히 그리스의 사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서양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가 오스만제국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새롭게 근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바, 그 사례가 해방 이후의 한반도와도 어느 정도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고전기 문화유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을 활용했는지를 짚어 보는 것은 특히 흥미로운 연구주제일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의 근대국가 형성과 고고학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유럽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근대국가, 민족주의, 그리고 고고학의 상호 관계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아울러 근대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민족주의적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그리스의 고고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립되고 성장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으며, 정체성 확립과 관련해서 고고학적 유적의 복원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20세기에 들어와서 정치적 변동에 따른 그리스 고고학의 대응과 마케도니아와 베르기나의 별(Star of Vergina)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그리스 고고학의 현 단계를 살펴보겠다. 이런 방면의 논의는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고고학의 현재적 모습을—제도적 측면이나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의 측면, 그리고 고고학 활용의 측면에서—반성적으로 검토하는데 있어서도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유럽 근대국가, 민족주의, 그리고 고고학

유럽에서 '과거'는 15세기 르네상스 이래로 귀족이나 부르주아 계층의 정치적 아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이 집단들은 고대의 유물이나 예술작품을 소유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입지를 재생산했고 강화했다. 한편, 19세기에 들어와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중산시민층이 정치·경제적 주체로 성장하였고 이들을 주축으로 근대국가의 성립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근대국가와 자본주의의 성장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nationalism)²⁾가 대두되었다.

위와 같은 배경 속에서 서양 근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고고학은 개별 국가의 정체성과 애국적 감수성을 확립하고 고양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립하게 되었다. 특히 19세기에 들어와 유럽의 국가들은 고고학 자료에 대한 발굴조사와 연구를 적극적으로 후원했고 그 결과를 자국의 역사 서술에 활용함은 물론, 정치적 선전의 도구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³⁾ 또한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존재 규명은 물론, 대내외적 선전을 위해 중요 도시에는 박물관을 건립하고 대학에 고고학과를 설립했는데, 이런 노력들은 고고학이 학문으로 자리 잡는데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⁴⁾

2) 앤서니 스미스에 의하면 민족주의란 하나의 민족을 구성하는 사회 조직의 자율성, 통합, 그리고 정체성을 획득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운동으로 정의된다. A. D. Smith (1991), *National Identity*. Penguin Books, London, p. 51. 유럽에서 '민족'이나 '민족주의'는 원초적이거나 불변하는 사회적 실체가 아닌 역사적으로 특정 시기, 즉 근대의 국가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물론 민족은 근대 이전에 존재해 왔던 사례도 있지만 민족과 민족주의는 정치,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근대에 들어와 만들어졌으며, 민족은 민족공동체에 관한 집단적 정체성, 그리고 공유된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B. Anderson (1991), p. 58.

3) B. Trigger (1996), "Alternative Archaeologies: Nationalist, Colonialist, Imperialist", *Contemporary Archaeology in Theory* (eds. R. Preucel and I. Hodder), Malden: Blackwell Publishing, p. 618.

4) M. Diaz-Andreu and T. Champion (1997), *Nationalism and Archaeology in Europe*, London:

19세기 유럽에서 고고학은 근대국가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와도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했다. 민족주의는 고고학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거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고고학은 민족주의적 정체성의 확립에 필요한 언어적, 민족적, 인종적 요소들을 강화시키는데 종종 기여하기도 했다. 특히 고고학은 '옛 주민'의 흔적을 찾아냄으로써 특정 지역 내 특정 집단의 존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⁵⁾

유럽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맺어진 고고학과 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해 전자가 학문 외적인 이유로 활용되었다는 측면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⁶⁾ 하지만 양자의 관계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⁷⁾ 즉 서양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민족주의가 고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이 과정에서 고고학의 학문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고, 고고학적 지식도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민족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고고학자들이 유적 간의 문화적 유사성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고고학 자료의 공간적 분포 양상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도 유의할만한 대목이다.⁸⁾

그 평가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19세기 이후로 유럽 국가들에서 고고학이 현실정치와 연관되어 발전했음은 분명한 사실인데, 흥미롭게도 그 관

UCL Press, p. 9.

- 5) M. Diaz-Andreu and T. Champion (1997), pp. 5-6.
- 6) M. Diaz-Andreu and T. Champion (1997), pp. 19-21.
- 7) P. L. Kohl and C. Fawcett (1995), "Archaeology in the service of the state: theoretical considerations", *Nationalism, Politics and the Practice of Archaeology* (eds. P. L. Kohl and C. Fawce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7-18.
- 8) B. Trigger (1995), "Romanticism, Nationalism, and Archaeology", *Nationalism, Politics and the Practice of Archaeology* (eds. P. L. Kohl and C. Fawce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66-272.

계맺음의 양상은 나라마다 달랐다. 예를 들어 톰센(Thomsen)이나 워세(Worsaae)와 같은 근대 고고학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한 덴마크에서는 19세기에 들어와 당시의 암울한 정치적·외교적 상황 속에서 국가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고, 이에 고고학은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되돌아보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⁹⁾ 또한 유럽 근대화의 정치적인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경우, 앙시앵 레짐에서 왕실과 호고주의자들이 오랫동안 결탁해왔던 관계로 '고고학적 과거'는 오히려 구체제를 옹호하는데 기여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프랑스에서 민족주의적 고고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한참 뒤로, 1870년부터 1871년까지 있었던 보불전쟁에서의 패배가 그 계기가 되었다.¹⁰⁾ 그리고 고고학이 현실정치에 개입한 극단적인 사례로는 19세기 후반에서야 통일을 이룩한 이탈리아와 독일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국의 인종적 혹은 언어적 뿌리를 찾아 국가적 통합을 정당화하거나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고고학과 민족주의의 결합이 극단적인 행태로 나타나기도 했는데,¹¹⁾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국가들이 고고학을 도구화하여 영토침략을 자행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이런 사례들이 예외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도 세계전역의 고고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국의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문

9) M. L. S. Sorensen (1997), "The Fall of a Nation, the Birth of a Subject: The National Use of Archaeology in Nineteenth-century Denmark", *Nationalism and archaeology in Europe* (eds. M. Diaz-Andreu and T. Champion), London: UCL Press, pp. 45-46.

10) A. Schnapp (1997), "French Archaeology: Between National Identity and Cultural Identity", *Nationalism and archaeology in Europe* (eds. M. Diaz-Andreu and T. Champion), London: UCL Press, pp. 56-58.

11) E. Cova (2010), "Negotiating the Past in the Present: Civic Museums, and Curatorial Practice in Emilia-Romagna, Italy", *European Journal of Archaeology* 13(3), pp. 304-306; I. Wiwjorra, (1997), "German Archaeology and Its Relation to Nationalism and Racism", *Nationalism and archaeology in Europe* (eds. M. Diaz-Andreu and T. Champion), London: UCL Press, pp. 177-179.

학적 기반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고고학의 전개과정은 여전히 민족주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고고학 전개양상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에서는 고고학이 국가형성기에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그리스에서의 근대국가와 민족주의, 그리고 고고학

3.1. 그리스의 근대국가 성립과 민족주의적 정체성 확립

그리스를 포함한 발칸반도의 거의 대부분 지역을 지배하던 오스만제국이 18세기에 들어와 대내외적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국운이 기울어졌고, 이에 따라 그리스의 독립을 위한 환경은 유리하게 조성되었다. 또한 이 무렵 그리스의 상인들은 중부 유럽을 무대로 교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었는데, 상인계급의 성장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계몽주의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에 영향 받은 상인계급은 학교와 도서관의 건립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광범위한 인문적 분위기의 고양으로 이어졌다.¹²⁾ 한편, 그리스에서 고전기, 고고학 유적 및 유물, 그리고 호고주의는 오스만제국의 통치에 대항하는 일종의 자유사상과 개인적 고결함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¹³⁾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에서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12) I. Morris (1994), *Classical Greece: Ancient Histories and Modern Archaeolog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11.

13) A. Sakellariadi (2011), "Archaeology for the people? Greek archaeology and its public: an analysis of the socio-political and economic role of archaeology in Greece",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College London, pp. 62-63.

자국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싹트게 되었다. 이때 고고학은 민족주의의 측면에서 독립국가의 정신적인 기반을 다져줄 것으로 기대되었고, 그리스 지역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고전기의 기념비적 건축물과 유물은 당연히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줄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¹⁴⁾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리스의 고전기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것은 자국 내부에서부터가 아니라 외부에서부터였다. 18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정치·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고대 로마와 기독교로부터 물려받은 사상과 가치는 폄하되었고, 그 대신 고전기 그리스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졌다.¹⁵⁾ 이는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의 독립, 그리고 이에 연계된 계몽주의의 성장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지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던 유럽인들이 새로운 문화적 뿌리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리스의 사상, 이념, 문화를 새로운 문화적 뿌리로 간주하고자 하는 흐름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면서 유럽 전역(특히 영국)에서는 그리스의 건축, 예술, 유적, 유물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귀족, 학자, 여행가들에 의한 그리스 고전기 문물의 연구와 방문은 활발히 진행되었다.¹⁶⁾ 또한 18세기에 이루어진 헤르쿨라네움(Herculaneum), 포세이돈 신전(Paestum) 등에 대한 발굴을 계기로 그리스 고전기 문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었다.¹⁷⁾

14) P. Mackridge (2008), "Cultural difference as national identity in modern Greece", *Hellenisms: Culture, Identity, and Ethnicity from Antiquity to Modernity* (ed. K. Zacharia), Aldershot: Ashgate, pp. 7-8.

15) N. A. Silberman (1995), "Promised Lands and Chosen Peoples: The Politics and Poetics of Archaeological Narrative", *Nationalism, Politics and the Practice of Archaeology* (eds. P. L. Kohl and C. Fawce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55.

16) F. M. Tsigakou (1981), *The Rediscovery of Greece: Travellers and Painters of the Romantic Era*, London: Thames and Hudson, p. 15.

17) A. Gazi (2011), "National Museums in Greece: History, Ideology, Narratives", *Building National Museums in Europe 1750-2010*, Conference proceedings from EuNaMus, European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옛 그리스를 유럽의 정신과 서구 문명의 기원지로 간주하고, 또한 새로운 예술적, 윤리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상상의 세계로 이상화하는 '신고전주의' 혹은 '헬레니즘' 사조가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¹⁸⁾ 그리스의 고전기 문화에 대한 유럽인들의 숭배는 19세기에 들어와 필헬레니즘(Philhellenism: 그리스 문화에 대한 숭앙) 분위기로 이어졌는데, 바로 이러한 필헬레니즘은 그리스에도 수입되어 그리스인들이 그들의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를 가져왔다.¹⁹⁾ 특히 이러한 사조를 옹호했던 그리스 정치가들은 필헬레니즘을 현실사회의 정치 사회적 활동에도 즉각 적용시켰으며, 그것은 나아가 그리스 독립전쟁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을 견지할 경우, 당시의 오스만제국은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로부터 변질된 잔재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져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²⁰⁾

이처럼 19세기 초반에 시작되었던 민족주의적 분위기의 고조는 결국 1822년에 그리스 독립전쟁의 발발로 귀결되었다.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유럽 열강들이 주도했던 독립전쟁 와중에 초대 대통령 요하니스 카포디스트리아스(Ioannis Kapodistrias)가 암살되자, 유럽 열강들은 군주제를 성립시켰고 바이에른 출신의 오토(Otto)은 초대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이런 그리스의 국가형성에 있어서 그리스인들만이 아닌 유럽인들도 이렇듯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는데, 바로 이들이 앞장서서 신생 그리스 국가를 고전기 그리스와 연결시켰다. 특히 그리스를 옛 영광의 시대로 복귀시키고자

National Museums: Identity Politics, the Uses of the Past and the European Citizen, Bologna 28-30 April 2011, EuNaMus Report No. 1, p. 34.

- 18) E. F. Athanassopoulou (2002), "An 'ancient' landscape: European ideals, archaeology and nation building in early modern Greece", *Journal of Modern Greek Studies* 20, p. 279.
- 19) R. Clogg (2002), *A Concise History of Greece* (2nd ed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47.
- 20) A. Gazi (1993), "Archaeological Museums in Greece (1829-1909): the Display of Archaeology",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Leicester, pp. 44-46.

했던 오톤 국왕은 늘 고전기 과거의 영광을 현실정치에 활용했다.²¹⁾

독립 직후 그리스는 어떻게 하면 단일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근대 그리스 국가의 기원을 밝히는 것이 당시로서는 최우선적인 과업이었지만, 19세기의 그리스와 고대 그리스 사이에는 아무런 혈연적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도처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즉 고전기 이후, 특히 기원후 6세기 이후로 그리스인들이 슬라브인들과 피가 섞이면서 그 혈통적 연속성을 잃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사실 상당한 역사적 근거가 있는 주장이었다. 그리하여 당시 그리스 국가에서는—아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고고학뿐만 아니라 역사학과 민속학을 총동원하여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그리스 민족의 '연속성'을 밝히고자 시도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규정해 나가고자 했다.²²⁾

이처럼 그리스의 근대국가와 고전기를 연결시키는 것은 근대 그리스 민족주의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비잔틴 유적들은 물론 고대 헬레니즘에 해당되는 유적들도 '그리스'의 것으로 상정되었다. 흥미롭게도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의 고고학자들은 비잔틴 고고학이나 청동기시대 이전의 선사고고학을 자신들의 연구분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국가적 필요에 따라 이런 기존의 시각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²³⁾ 다시 말해 그리스에서는 학문 자체의 성장이 아닌 사회정치적인 요구에 따라 고고학 연구의 지평이 확대되었던 셈이다. 사실

21) R. Clogg (2002), pp. 46-48.

22) A. Liakos (2008a), "Hellenism and the making of modern Greece: time, language, space", *Hellenisms: Culture, Identity, and Ethnicity from Antiquity to Modernity* (ed. K. Zacharia), Aldershot: Ashgate, p. 208.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 독립 당시 그리스의 일반인들은 고전기와 비잔틴시대의 역사에 대해 사실상 무지했다고 알려져 있다. 독립 이후 확립된 근대적 교육체계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그리스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주된 역할을 했다. R. Clogg (2002), pp. 50-53.

23) E. F. Athanassopoulou (2002), pp. 290-298.

유럽의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그리스에서야말로 고고학이 현실정치의 영역에서 근대국가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9세기 내내 그리스의 고고학자들은 자국의 기원을 밝히는 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인식했다. 특히 1840, 50년대에는 고전기의 과거를 바탕으로 그리스의 영토 내 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그리스인들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소위 '원대한 이상'(Great Idea)이²⁴⁾ 그리스 사회 내에서 제기되었다. 이것은 이후 가장 유력한 정치적 수사로 활용되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까지 변모하는 정치·사회적 상황에 맞게 이용되었다.²⁵⁾ 이후 그리스의 역사는 고전기뿐만 아니라 비잔틴 시대까지를 포괄하게 되면서 그리스의 국가적 정체성은 그만큼 변모하였다.²⁶⁾

20세기 이후로도 그리스는 여러 차례의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면서 대내적으로 국가적 정체성의 재규정을 시도하였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그리스는 비록 승리했으나 국토는 잿더미가 되었다—문화유산은 새롭게 사회통합 및 국가재건 중 '지적재건'의 상징물로 인식되었고, 현대 그리스와 고대 헬레니즘과의 연속성도 다시금 강조되었다. 하밀라키스가 지적하듯이,²⁷⁾ 그리스의 현대사를 되돌아볼 때 현대 그리스와 고전기 그리스 사이의 역사적 연속성이 근본적으로 의문시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요약하면 외세를 기반으로 성립한 근대국가 그리스에서는 역사의 고

24) 1844년 당시 그리스 수상인 이오안니스 콜레티스(Ioannis Kolettis)가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으로, 그리스의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문화적 르네상스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Y. Hamilakis and E. Yalouri (1996), "Antiquities as symbolic capital in modern Greek society", *Antiquity* 70, p. 122.

25) P. M. Kitromilides (1998), "On the intellectual content of Greek nationalism: Paparrigopoulos, Byzantium and the Great Idea", *Byzantium and the modern Greek identity* (ed. D. Ricks and P. Magdalino), Aldershot: Ashgate, p. 27.

26) E. F. Athanassopoulou (2002), pp. 295-298.

27) Y. Hamilakis (2007), *The Nation and Its Ruins: Antiquity, Archaeology, and National Imagination in Gree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88-301.

비마다 그 국가적 정체성이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독립 직전인 1821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인들은 콘스탄티노플에 거점을 두었던 비잔틴 제국을 그리스 역사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았지만 백 년 가까이 지난 1914년에는 아테네에 비잔틴 박물관(Byzantine and Christian Museum)이 건립되었다. 이것은 그리스의 중세 기독교 역사와 그 산물이 그리스 정체성의 일부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²⁸⁾ 물론 이런 와중에서도 고전기 과거를 무조건으로 숭배하는 분위기는 오늘날까지도 그리스에서 지속되고 있다.²⁹⁾

3.2. 근대 그리스에서 고고학의 성립

앞서 밝혔듯이 근대국가의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그리스 지식인에게 고전기 과거는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유력한 정치적 및 이데올로기적 수단 중 하나였다. 하지만 독립전쟁 기간 동안(1822-1829)은 물론 19세기 후반까지도 현실적으로 요구되었던 고고학적 활동은 유적발굴, 유물전시, 연구활동 등이 아니라 전란 와중에 훼손되거나 약탈될 우려가 있던 고고학 유적 및 유물의 보호였다. 이에 새롭게 구성된 그리스 임시 정부는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도굴행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임시적 조치들을 실행했다.³⁰⁾ 또한 1827년에 초대 대통령 요하니스 카포디스트리아스는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막고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지자체 당국에 넘기도록 독려했다. 이후 그리스의 문화유산 관련 법률체

28) A. Sakellariadi (2011), "Archaeology for the people? Greek archaeology and its public: an analysis of the socio-political and economic role of archaeology in Greece",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College London, pp. 137-138.

29) I. Morris (1994), pp. 45-48.

30) A. Gazi (2011), pp. 365-366.

계는 1834년에 제정된 법령을 통해서 공고화되었는데, 이 법률은 그리스 내의 모든 문화재가 국가귀속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사유지에서 발견된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그 한계도 분명하다.³¹⁾ 사실, 독립전쟁 외중에 문화재의 외부 반출은 비밀비재하게 일어났으며, 신생국가였던 당시 그리스의 재정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연구나 교육 목적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특정한 조건을 걸고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용인했다.³²⁾ 또한 중세시대 문화재의 경우 그 보존 여부가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정치사회적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³³⁾

새로운 국가체제 하에서 아테네가 그리스의 수도로 정해지면서 고고학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강화되었다. 독립전쟁을 겪으면서 도시 전체는 폐허로 변했지만 이는 도리어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회로 돌아왔다. 다만 아테네를 어떤 방식으로 재건해야 하는지, 그 방향이 문제가 되었다. 후술하겠지만 바이에른 출신의 왕가에서는 중세 신고전기 양식의 재건을 추구했다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그리스 출신의 고고학자들과 상당 기간 동안 마찰을 빚었다. 즉 국왕 가문은 고전기가 아닌 독일식의 유평피아의 복원을 지향했는데,³⁴⁾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 고고학 정책을 담당했던 이가 바이에른 출신의 루드비히 로스(Ludwig Ross)였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열렬한 민족주의자였던 키리아코스 피타키스

31) A. Sakellariadi (2011), p. 135.

32) A. Kokkou (2009), *Care for the Antiquities in Greece and the first Museums* (2nd edn.), Athens: Capon [in Greek]. (A. Sakellariadi (2001), p. 77에서 재인용.)

33) 1899년에 들어와서야 새롭게 개정된 법률에 의해 국가가 예외 없이 모든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이 명시되었으며 중세시대의 문화재에 대한 규정이 불완전하게나마 마련되는 등 근대적인 문화재 관리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A. Sakellariadi (2011), pp. 80-81.

34) A. Mirkovic (2012), "Who Owns Athens? Urban Planning and the Struggle for Identity in Neo-Classical Athens (1832-1843)", *Cuadernos de Historia Contemporánea* 34, pp. 150-153.

(Kyriakos Pittakis)가 로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드디어 그리스인에 의해 그리스 고고학의 기틀이 갖추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³⁵⁾

1834년 법령에 근거하여 그 해에 설립된 '그리스 고고학 기구'(Greek Archaeological Service)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고학 활동을 실시하였고, 1837년에는 사설 단체인 '고고학회'(The Archaeological Society)가 설립되어 고고학적 과제들을 수행했다.³⁶⁾ 그리고 그리스 고고학자들은 근대국가 성립 초기부터 고고학 유물의 발굴과 기록의 보존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렇지만 19세기 중반까지 그리스 고고학은 재정적 어려움과 열악한 연구환경으로 인해 고고학자를 육성하거나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정치·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훼손 위기에 처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은 박물관의 건립이라는 인식이 존재했던 바, 1829년에는 아이이나(Aegina)섬에 최초의 국립 박물관이 설립되었다.³⁷⁾ 이후 아테네를 수도로 삼은 정부가 이곳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 박물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자 했으나 당시 재정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모두 부족했던 중앙정부는 어쩔 수 없이 지자체로 하여금 박물관을 설립하도록 유도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하였고, 1834년에는 모든 지방 행정구역의 중심도시에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근거가 법률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첫 번째 지방 박물관이 스파르타에서 개관한 것은 그 훨씬 뒤인 1874년에 이르러서였다.³⁸⁾

35) S. L. Dyson (2006), *In pursuit of ancient pasts: a history of classical archaeology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 74.

36) A. Gazi (1993), pp. 52-53.

37) A. Gazi (1993), p. 77. 초대 대통령 카포디스트리아스는 아이기나 섬에 군 병영으로 사용될 큰 건물을 세우도록 했는데, 이 건물은 이후 박물관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런 그리스 최초의 국립 박물관에 소장되었던 유물들은 1834년에 아테네로 이관되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Aegina>, 2015년 6월 20일 연람.

38) A. Gazi (1993), pp. 174-176.

사실 19세기 내내 그리스에서는 박물관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개의 박물관에서 수준 높은 연구나 전시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럼에도 전시와 기획전에서 이상화된 고전기 과거에 대한 견해를 유지하는 태도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³⁹⁾ 이는 1866년에 구체적으로 건립이 추진되고 1893년에야 최종적으로 들어선 국립고고박물관(The National Archaeological Museum)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⁴⁰⁾ 아티카(Attica)⁴¹⁾를 중심으로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했던 국립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했는데, 그것은 고전기 과거와의 확실한 연속성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박물관이 건립되었고 현재와 같은 체계적인 박물관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그리스 문화유산의 보존이 곧 그리스 국가의 보존이라는 기저의 생각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그리스의 독립 이래 고고학의 골격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학문적인 목적이 아니라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유적의 재건과 문화재의 활용이라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긴급한 목적에 따라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정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도 고고학자의 학문활동은 이러한 국가적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⁴²⁾

39) A. Gazi (1993), p 235.

40) 그리스에서 국립고고박물관은 독립 이후 60여 년이 지나 건축되었고, 1893년 완공 이전까지 국보급의 유물들은 수도 아테네의 여러 박물관에 나뉘어 전시되었다. <http://www.namuseum.gr/museum/history-en.html>, 2015년 6월 20일 열람.

41) 고대 그리스의 남동부 지방으로 아테네가 이곳에 속해 있다.

42) A. Sakellariadi (2011), pp. 100-101.

3.3. 고고학을 이용한 과거의 복원작업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인들이 고전기의 유적 및 유물을 바라보는 태도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오스만제국 당시의 그리스인들이 고전기의 문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유럽의 여행가나 호고주의자들이 남긴 글들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 주민들은 고전기 유물에 대해 미신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이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⁴³⁾ 이와 관련해서 19세기 초 엘진(Elgin) 경이 오스만제국의 허가를 받고 파르테논 신전의 대리석 조각을 떼어냈을 당시의 일화를 떠올릴 수 있다.⁴⁴⁾ 엘진의 변호사였던 헌트(Hunt)는 대리석 조각을 떼어내는 일을 맡았던 아테네 주민들이 아무런 적개심을 보이지 않았고 작업에 대해서도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증언하였다. 반면 당시 목격자인 도드웰(Dodwell)과 클라크(Clark)에 의해 다른 견해가 피력된 바 있다. 그들에 의하면 오스만인들은 15세기 이래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던 파르테논 신전에서 조각들을 떼어 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사원을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그리스인들 역시 엘진 경의 행동에 대해 분개하고 이를 허가한 오스만정부를 비난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인들의 서로 다른 관점은—물론 엘진 대리석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그 누구도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없었지만—적어도 독립전쟁 이전의 고전기 유물에 대해 그리스 주민들이 가졌던 이중적 태도를 어느 정도 대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⁵⁾

고전기 유물에 대한 입장의 변화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에 의해 위로부터 파급된 것이 확실한데, 앞서 언급한 대로 그들은 독립국가

43) R. Clogg (2002), p 27.

44) E. F. Athanassopoulou (2002), pp. 285-286.

45) Y. Hamilakis (2007), pp. 64-74.

형성기에 법적 및 제도적 차원에서 고전기의 유적과 유물을 일상생활로부터 분리시켰고, 이 시기는 유럽 문명의 황금기로 승격되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의 근대적 인식변화는 그리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으며 기독교적 관념과 생활방식은 기저에서 계속 유지되었다.⁴⁶⁾ 기실 19세기 초반까지도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에게 기독교의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예를 들어, 당시 사람들은 독립국가가 탄생에 이르는 과정을 흔히 고전기 국가의 재림으로 간주하기도 했는데, 이 모티프는 기독교의 재림에서 본따 온 것이었다. 또한 그리스에서는 오늘날에도 3월 25일이 ‘국가부활절’(National Resurrection Day)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날이 기독교 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기도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의 이 당시 민족주의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체계의 측면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⁴⁷⁾

이러한 상황에서 헬레니즘 시대로의 복원에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고전기의 화려한 영화를 가로막고 있는 후대의 잔재를 제거하고 또한 고고학적 경관을 개조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작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유명한 고전기 유적들의 경우, 그 원래의 지명을 다시 살리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즉 사람의 성은 물론, 마을, 도시, 장소 등의 명칭들도 그리스 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더불어 카타레부사(katharevousa)어가 그리스의 공식어로 채택되었다.⁴⁸⁾ 고전기와 관련 없는 고고학적 잔재는 제거하고, 상징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비적 건축물은 재건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특히 그리스 문명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Acropolis)를 대상으로 이런 작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아크로폴리스는 독립전쟁 당시 1822년에 그리스군이 확보했다가 1827년에는 다시 오스만제국군에 함락되었는데, 이 와중에 관

46) Y. Hamilakis (2007), pp. 84-85.

47) B. Anderson (1991), p. 12.

48) E. Thomopoulos (2011), *The History of Greece*. Santa Barbara, CA: Greenwood, p. 77.

런 건축물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 최종적으로 1833년에 오스만제국군이 물러나자 고전기 이후에 덧붙여진 외피를 벗기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참고로 이 작업을 주도했던 이는 그리스인이 아니라 왕실의 후원을 받은 독일인 레오 폰 클렌체(Leo von Klenze)였는데, 그가 고전기 이후의 건축물들을 철거하면서 아크로폴리스의 용도는 성채가 아닌 기념물로 바뀌게 되었다.⁴⁹⁾

아크로폴리스의 한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어서 그리스 문명의 또 다른 핵심적인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파르테논 신전(Parthenon)의 경우도 대내외적 정치 상황에 따라 건물의 용도가 수시로 변모해 왔다. 이곳은 기원후 6세기 이후부터 바실리카(basilica) 성당으로 이용되다가 1456년에 오스만제국이 정복한 이후에는 모스크로 활용되었고, 종탑은 첨탑으로 변형되었다.⁵⁰⁾ 이후 이곳은 탄약창고로도 사용되다가 1687년에 일어났던 폭격으로 건축물이 많이 파손되었다.⁵¹⁾ 독립 이후 1834년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고대 건축물로 선언되면서 그곳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작업이 시작되었는데, 폐허가 된 파르테논 신전 안에 들어서 있던 이슬람 모스크는 제거되었고 1836년에는 니케 신전(Temple of Athena Nike)이 재건되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클렌체가 제거한 아크로폴리스의 야만적 요소들 중에는 중세시대에 축조되었던 타워가 원래 빠져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이 타워가 경관적인 측면에서 빼어났기 때문에 살렸다고 하나, 1870년대에 그의 작업을 이어받은 그리스 고고학자들은 결국 그 타워를 제거했다. 즉 유럽의 고고학자들은 동방의 문화요소만을 야만적인 것으로

49) Y. Hamilakis (2007), p. 87.

50) M. Beard (2002), *The Parthenon*. London: Profile, pp. 68-80.

51) 이 당시 파르테논 신전이 훼손된 것이 19세기 초 오스만 주재 영국 대사였던 엘진 경이 그리스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으로 대리석 벽화 조각상을 영국으로 반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M. H. Jeffrey (1999), pp. 171-179.

치부했던 반면, 당시의 그리스인들은 동방적인 것뿐만 아니라 서구 침입자들의 흔적 역시 야만적인 것으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⁵²⁾

아크로폴리스에 대한 재건축 작업의 정치적인 모습이 극적으로 표출된 또 다른 사례로 루드비히 로스(Ludwig Ross)에 의해 주도된 니케 신전의 재건축을 들 수 있다. 이 신전은 원래 고대 페르시아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축조되었던 것인 만큼, 그리스의 독립 이후 오스만제국의 압제로부터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를 재건축하는 작업의 정치적인 의미는 명확했다.⁵³⁾ 이렇게 재건된 니케 신전의 이미지는 19세기를 대표하는 그리스의 이미지로 곧장 정착되었고, 그것은 인화된 사진의 형태로 유럽 사회에 즉각 전달되었다. 서유럽의 지식인들이 희망했던 바로 이런 이미지들은 그리스에서 여러 공정을 거쳐 생산되자마자 곧바로 수출되었다. 그리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국제적 문화상품의 생산 및 유통 체계가 이렇듯 19세기 당시에 형성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⁵⁴⁾

4. 20세기 그리스 고고학과 민족주의적 정체성의 문제

19세기 독립 이후 여러 정치·군사적 사건들을 거치면서 근대국가 그리스의 영토는 변경되었다. 사실 '원대한 이상(Great Idea)이 제기된 1840년대에도 그리스 국가의 영토적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대부분의 그리스 정당 단체들은 영토 확장을 주장했지만 그 범위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고전기 그리스의 이미지를 선호했던 세력은 (아테네가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그

52) Y. Hamilakis (2007), p. 91.

53) Y. Hamilakis (2007), p. 93.

54) Y. Hamilakis (2007), pp. 95-96.

리스 반도를 위주로 한 영토 설정에 무게를 두었다. 반면 그리스를 비잔틴 제국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보았던 이들은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고토 회복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⁵⁵⁾ 이렇게 대립되는 입장들은 각각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와 6세기에 지어진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St. Sofia) 성당의 이미지로 대표되는데, 이 유적들은 그리스의 서로 다른 국가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유적지로 간주되었다. 양측 사이의 논쟁은 터키와의 전쟁(1919-22)에서 패한 이후에 1923년에 로잔 조약(Treat of Lausanne)이 체결되면서 종식되었다. 이러한 영토 확정과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주민교환(그리스와 터키 인구의 교환)의 결과로 터키에 거주하던 그리스 정교회 주민들은 새롭게 설정된 그리스 영역으로 몰려들게 되었다. 이리하여 근대국가 그리스의 '원대한 이상'이 수포로 돌아가자 그리스는 영토확장의 꿈을 접는 대신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의 정비에 집중하게 되었다.⁵⁶⁾ 이는 사실 그리스로서는 굴욕적인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는데, 이에 그리스 고고학은 1930년대에는 기존의 연구방향을 바꾸어 비잔틴제국 시대의 기독교사를 자국의 역사로 포괄하게 되었으며,⁵⁷⁾ 이 작업은 군사독재 정권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게 되었다. 비잔틴 시대에 대한 조사는 주로 아테나와 코린트(Corinth) 등지의 성당과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기독교 건축물과 예술작품들의 계보를 밝히는데 집중되었다.⁵⁸⁾ 이처럼 당시의 극적인 정치·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고고학자들은 이제 고

55) A. Liakos (2008b), "Historical Time and National Space in modern Greece", *Region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Past and Present* (eds. T. Hayashi and F. Hiroshi), Sapporo: Slavic Euroasian Studies, p. 209.

56) R. Clogg (2002), pp. 118-124.

57) W. H. C. Frend (1996), *The archaeology of early Christianity: a history*, London: Geoffrey Chapman, p. 205.

58) J. L. Bintliff (2001), "Recent developments and new approaches to the archaeology of Medieval Greece", in *IV European Symposium for Teachers of Medieval Archaeology*, Sevilla-Cordoba (eds. M. Valor and A. Carmona), Seville, pp. 33-34.

전기의 영광을 재현하는 꿈을 유적 및 유물을 통해 제공하기 보다는, 중세 유럽의 가장 막강했던 전제군주제 국가 중 하나인 비잔틴제국에 주목하였고 그 연구의 결과물은 군사독재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직·간접적으로 활용되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등을 겪으면서 그리스의 민족주의적 정체성은 대내외적으로 도전받기도 했다. 그중 오늘날의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방'을 포함하는 영토를 가졌던 고대 마케도니아(Macedonia)의 역사가 과연 누구의 역사인가에 관한 논쟁은 그리스의 민족주의적 정체성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인들은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래로 마케도니아 왕국의 영토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여겼으며, 비잔틴제국과 오스만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시대에도 여전히 그곳을 그리스의 영토로 인식했다. 19세기 후반에 마케도니아인⁵⁹⁾ 불가리아인, 그리고 세르비아인과 분쟁을 하고, 반-오스만 연합을 결성하며 발칸전쟁을 겪고, 또한 그 결과로 1913년 부쿠레스트 조약(Treat of Bucharest)을 체결하면서 그리스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상당 부분을 합병하게 되었다.⁶⁰⁾ 이후 그리스 정부는 1923년 로잔조약 체결 이후 이 지역에 국외로부터 이주한 그리스인들을 다수 정착시켜 인구 구성을 변화시켰고, 기존 주민들에 대해서도 동화 정책을 펴나갔다.⁶¹⁾ 처음에는 주민교환과 지명변경을 시도하였다가, 나중에는 해당 지역의 마케도니아인들이 슬라브 방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리스 정부는 주민 동화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일부 마케도니아인들은 이런 방식의 동화 정책에 반발하여 마케도니아적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시도하여 분쟁의 씨앗으로 남았다.⁶²⁾

59) 여기에서 '마케도니아인'이라 하면 고대 로마제국의 동서분리 이후 마케도니아의 영역에 진출하게 된 슬라브어를 사용했던 집단의 후예를 의미한다.

60) R. Clogg (2002), pp. 79-81.

61) R. Clogg (2002), p. 103.



[그림 1]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의 현재 국가경계 및 테살로니키의 위치

한편 고고학의 측면에서는, 그리스 남부 지역의 경우 미케네, 올림피아, 델포이, 델로스 등에서 고전기 그리스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대규모 유적들이 발견되고 조사된 것과 달리, 북부 지역 경우에는 이에 필적할 만한 문화유산이 확인되지 않은 실정이었다(그림 1). 따라서 20세기 이래로 그리스 북부 지역은 고고학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⁶³⁾ 다만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인 테살로니키(Thessaloniki)에서는 비잔틴제국 시대의 교회들에 대한 발굴과 복원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오스만제국 시대에 들어와 모스크로 사용되었던 교회들에

62) L. M. Danforth (1984), "The Ideological Context of the Search for Continuities in Greek Culture", *Journal of Modern Greek Studies* 2(1), pp. 56-58.

63) K. Kotsakis (1998), "The Past is Ours: Images of Greek Macedonia", *Archaeology Under Fire: Nationalism, Politics and Heritage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and Middle East* (ed. L. Meskell),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 47.

대한 '성격 개조'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작업으로, 비잔틴제국 시대를 복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⁶⁴⁾

이렇듯 고고학적 연구에 있어서 '중심'이 아닌 '변방'에 머물러 있었던 이 지역이 정치적으로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냉전시대의 종말 이후, 1991년에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었던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마케도니아 공화국(Republic of Macedonia: ROM)이 분리·독립하면서부터이다. 독립 당시부터 그리스는 새로 탄생한 '마케도니아 공화국'의 명칭이 바로 남쪽에 인접해 있는 그리스 내 마케도니아 지방의 명칭과 같다는 이유로— 이로 인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자국 내 영토권에 대한 주장을 우려하며— 신생국가의 국명에 대해 UN에서 정식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 북부와 맞닿아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태어난 곳으로, 그가 그리스 민족의 자랑이자 자존심의 상징으로 추앙되는 만큼, 이곳은 그리스인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장소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슬라브족과 알바니아계열의 주민이 이곳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정통 마케도니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누가 마케도니아의 원래 주인인가에 대해 양국 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런 상황의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이 1977년에 북부 그리스의 작은 마을인 베르기나(Vergina)에서 발견된 소위 '베르기나의 별'(Star of Vergina)에 대한 소유권으로, 이 논쟁은 민족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리스 고고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스 북부지역 고고학의 대가이자 그 자신이 1923년에 주민교환 정책에 따라 이 지역에 정착한 마놀리스 안드로니코스(Manolis Andronikos)는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 아이기아(Aigia)로 지정되는 베르기나에서 두 기의

64) K. Kotsakis (1998), p. 50.

무덤과 한 기의 신전을 발굴했다. 이 중 도굴되지 않은 한 기의 무덤에서는 인골자료와 함께 금으로 제작된 관, 금제 상자, 은제 그릇, 금장식이 되어 있는 철제갑옷, 헬멧, 상아로 만든 조각상 등 다수의 최고급 부장품들이 확인되어 그곳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의 묘로 비정되었다.⁶⁵⁾ 특히 금제 상자의 외면에는 ‘빛나는 별’ 혹은 ‘빛나는 태양’으로 명명된 특유의 16개의 뿔이 나 있는 별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 문양은 흔히 고대 마케도니아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리스인과 마케도니아인은 각각 자신들이 베르기나의 별의 정치적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도 아닌 고대 집단의 상징을 둘러싼 소유권 문제가 외교적 문제로 까지 비화된 것은 1991년 독립 당시에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국기의 문양으로 베르기나의 별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명의 사용으로 이미 그리스와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는 당연히 베르기나의 별을 자신들의 역사의 일부로 여기고 있던 그리스인들의 비난을 사게 되었다. 실제로 그리스 내 마케도니아 지방의 지역기는 배경색만 푸른색으로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문양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격렬한 외교적 분쟁 끝에 마케도니아 공화국은 베르기나의 별을 새롭게 도식화하여 국기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을 자신들의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게 되면서 이후 자신들의 과거와 마케도니아의 역사를 연결시키려는 그리스 고고학의 경향은 더욱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후 그리스 북부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가 대세를 타게 된 것은 이와 관련해서 볼 때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고학적 활동이 전국가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것인 만큼, 여기에서도 고고학과 국가 정체성의 결합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어서 현재 그리스가 고고학적 발견물을 통해 국가적 정체성을 변모시켜 나가는 양상을 엿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65) M. Andronikos (1984), *Vergina: The Royal Tombs and the Ancient City*, Ekdotike Athenon S.A.: Athens, p. 17.

5. 맺음말

19세기 그리스 근대국가의 성립과정에서 그리스에 대한 서유럽 지식인들의 애정과 유럽 열강들이 직접적인 개입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실상 외세에 의해 위로부터 성립된 그리스 정부는 독립 이후는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국가적 정체성의 확보가 절실한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고대 유럽 문명의 중심지이었던 역사적 상징성을 배경으로 고고학은 그리스의 현실정치의 영역에 바로 편입되어 국가 정체성 유지 및 강화에 일익을 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독립 이후 수도 아테네와 아크로폴리스의 재건축 과정, 1840년대에 불어 닥친 '원대한 이상' 열풍에 힘입은 국가 정체성의 재규정 과정, 1923년 로잔조약 체결 이후 비잔틴 제국에 대한 조명작업, 그리고 20세기 베르기나의 별 논쟁 등은 그리스 고고학이 민족주의,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확립과 직접 결합되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근대 그리스의 사례는 유럽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적 정체성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측면이 다분하다. 물론 고고학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것이 과도하면 학문의 진정한 성과가 가려지거나 오도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현재까지도 그리스 고고학에서 오스만제국 시대의 유적, 유물은 고고학적 연구의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⁶⁶⁾ 최근 그리스 고고학 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스 고고학의 정치도구화 시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가라고 할 수 있는 하밀라키스는 그리스 고고학을 근대국가라는 세속종교 내에서 행

66) C. Ntaflou (2011), "The New Acropolis Museum and the Dynamics of National Museum Development in Greece", Conference proceedings from EuNaMus, European National Museums: Identity Politics, the Uses of the Past and the European Citizen, Bologna, EuNaMus Report No. 1, pp. 98-99.

해지는 일종의 종교적 의례라고 비판하고 있다.⁶⁷⁾ 하지만 한편으로는 19세기에 새롭게 들어선 근대국가 그리스의 당면한 정치사회적 통합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기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자신들이 자부심을 가질만한 물질자료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상과 같이 근대국가 성립과정에서 그리스 고고학의 부정적 측면에는 유의해야 하겠지만, 사회통합과 국가적 이미지 제고의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리스 고고학이 학문적 성과를 통해 세계고고학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역시 앞으로 엄밀히 평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살펴 본 그리스 고고학의 형성과정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아직까지 분단국가로 살고 있는 한국에서 고고학의 역할을 살펴 볼 때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고고학에서는 한민족의 기원 문제, 고대 국가의 성립과 영역화 과정 연구 등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고고학 자료를 이용한 민족주의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⁶⁸⁾ 이분야에서 참고할 만한 문헌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단편적인 고고학 자료에 의거해 과도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경향이 그 근저에 깔린 이론적인 전제나 방법론적인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질자료를 통한 과거의 해석이라는 고고학 연구의 원래 목표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⁶⁹⁾ 물론 유럽과는 상이한 국가형성 과정을 거친 동북아시아의 현실 속에서 고고학에 대한 한국사회의 직, 간접적인 요구를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민족주의적 연구 경향은 공감이가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해 나가야 한다.

67) Y. Hamilakis (2007), pp. 292-297.

68) 김종일(2008), 고고학 자료의 역사학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2, pp. 105-111.

69) 김종일(2008), p. 112.

참고문헌

【논 저】

- 김종일(2008), 「고고학 자료의 역사학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2, 한국고대사학회.
- 조대연(2014), 「고고학 자료를 이용한 근대 민족국가의 과거 재구성-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회 제 41회 학술회의 - 신화의 역사화: 반성과 비판을 통한 새로운 진진』, 한국상고사학회.
- Anderson, B.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Andronikos, M. (1984), *Vergina: The Royal Tombs and the Ancient City*, Ekdotike Athenon S.A.: Athens.
- Athanassopoulou, E. F. (2002), "An 'ancient' landscape: European ideals, archaeology, and nation building in early modern Greece", *Journal of Modern Greek Studies* 20.
- Beard, M. (2002), *The Parthenon*, London: Profile.
- Bintliff, J. L. (2001), Recent developments and new approaches to the archaeology of Medieval Greece, in *IV European Symposium for Teachers of Medieval Archaeology*, Sevilla-Cordoba, (ed.) M. Valor and A. Carmona, Seville.
- Clogg, R. (2002), *A Concise History of Greece* (2nd ed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va, E. (2010), "Negotiating the Past in the Present: Civic Museums, and Curatorial Practice in Emilia-Romagna, Italy", *European Journal of Archaeology* 13(3).
- Danforth, L. M. (1984), "The Ideological Context of the Search for Continuities in Greek Culture", *Journal of Modern Greek Studies* 2(1).
- Diaz-Andreu, M. & Champion, T. (1997), *Nationalism and Archaeology in Europe*, London: UCL Press.
- Dietler, M. (1994), "Our Ancestors the Gauls": Archaeology, Ethnic Nationalism,

- and the Manipulation of Celtic Identity in Modern Europe", *American Anthropology* 96(3).
- Dyson, S. L. (2006). *In pursuit of ancient pasts: a history of classical archaeology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Eskildsen, R. K. (2012), "The Language of Objects: Christian Jürgensen Thomsen's Science of the Past", *Isis* 103(1).
- Frend, W. H. C. (1996), *The archaeology of early Christianity: a history*, London: Geoffrey Chapman.
- Gazi, A. (2011), "National Museums in Greece: History, Ideology, Narratives", *Building National Museums in Europe 1750-2010*, Conference proceedings from EuNaMus, European National Museums: Identity Politics, the Uses of the Past and the European Citizen, Bologna 28-30 April 2011, EuNaMus Report No. 1.
- _____ (1993), *"Archaeological Museums in Greece (1829-1909): the Display of Archaeology"*,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Leicester.
- Hamilakis, Y. & Yalouri, E. (1996), "Antiquities as symbolic capital in modern Greek society", *Antiquity* 70.
- Hamilakis, Y. (2007), *The Nation and Its Ruins: Antiquity, Archaeology, and National Imagination in Gree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rtmuth, M. (2008), "De-constructing a 'Legacy in Stone': Of Interpretative and Historiographical Problems Concerning the Ottoman Cultural Heritage in the Balkans", *Middle Eastern Studies* 44(5).
- Jeffrey, M. H. (1999), *The Athenian Acropolis: History, Mythology, and Archaeology from the Neolithic Era to the Present*,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tromilides, P. M. (1998), "On the intellectual content of Greek nationalism: Paparrigopoulos, Byzantium and the Great Idea", *Byzantium and the modern Greek identity* (eds. D. Ricks and P. Magdalino) Aldershot: Ashgate.
- Kohl, P. L. & Fawcett, C. (1995), *Nationalism, Politics and the Practice of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hl, P. L. (1998), "Nationalism and Archaeology: On the Constructions of Nations and the Reconstructions of the Remote Past",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7.

- Kokkou, A. (2009), *Care for the Antiquities in Greece and the first Museums* (2nd edn.), Athens: Capon [in Greek].
- Kotsakis, K. (1998), "The Past is Ours: Images of Greek Macedonia", *Archaeology Under Fire: Nationalism, Politics and Heritage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and Middle East* (ed. L. Meskell),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iakos, A. (2008a), "Hellenism and the making of modern Greece: time, language, space", *Hellenisms, Culture, Identity, and Ethnicity from Antiquity to Modernity* (ed. K. Zacharia), Aldershot: Ashgate.
- _____ (2008b), "Historical Time and National Space in modern Greece", in T. Hayashi & F. Hiroshi (eds.), *Region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Past and Present*, Sapporo: Slavic Euroasian Studies.
- Mackridge, P. (2008), "Cultural difference as national identity in modern Greece", *Hellenisms: Culture, Identity, and Ethnicity from Antiquity to Modernity* (ed. K. Zacharia), Aldershot: Ashgate.
- Meskell, L. (2002), "The Intersections of Identity and Politics in Archae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1.
- Mirkovic, A. (2012), "Who Owns Athens? Urban Planning and the Struggle for Identity in Neo-Classical Athens (1832-1843)", *Cuadernos de Historia Contemporánea* 34.
- Morris, I. (1994), *Classical Greece: Ancient Histories and Modern Archaeolog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taflou, C. (2011), The New Acropolis Museum and the Dynamics of National Museum Development in Greece, Conference proceedings from EuNaMus, European National Museums: Identity Politics, the Uses of the Past and the European Citizen, Bologna 28-30 April 2011, EuNaMus Report No. 1.
- Sakellariadi, A. (2011), "Archaeology for the people? Greek archaeology and its public: an analysis of the socio-political and economic role of archaeology in Greece",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College London.
- Schnapp, A. (1997), "French Archaeology: Between National Identity and Cultural Identity", *Nationalism and archaeology in Europe* (eds. M. Diaz-Andreu and T. Champion), London: UCL Press.

- Silberman, N. A. (1995), "Promised Lands and Chosen Peoples: The Politics and Poetics of Archaeological Narrative", *Nationalism, Politics and the Practice of Archaeology* (eds. P. L. Kohl and C. Fawce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A. D. (1991), *National Identity*, Penguin Books, London.
- Sorensen, M. L. S. (1997), "The Fall of a Nation, the Birth of a Subject: The National Use of Archaeology in Nineteenth-century Denmark", *Nationalism and archaeology in Europe* (eds. M. Diaz-Andreu and T. Champion), London: UCL Press.
- Thomopoulos, E. (2011), *The History of Greece*. Santa Barbara, CA: Greenwood.
- Trigger, B. (1995), "Romanticism, Nationalism, and Archaeology", in P. L. Kohl & C. Fawcett (eds.), *Nationalism, Politics and the Practice of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igger, B. (1996), "Alternative Archaeologies: Nationalist, Colonialist, Imperialist", *Contemporary Archaeology in Theory* (eds. R. Preucel and I. Hodder),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Tsigakou, F. M. (1981), *The Rediscovery of Greece: Travellers and Painters of the Romantic Era*, London: Thames and Hudson.
- Whitley, J. (2001), *The Archaeology of Ancient Gree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Wiwjorra, I. (1997), "German Archaeology and Its Relation to Nationalism and Racism", *Nationalism and archaeology in Europe*, (eds. M. Diaz-Andreu and T. Champion), London: UCL Press.

원고 접수일: 2015년 6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5년 7월 20일

게재 확정일: 2015년 7월 30일

ABSTRACT

Archaeology, Nationalism and the Formation of Modern States
- with Focus on the Example of Greek Archaeology

Cho, Daeyoun*

The establishment of archaeology as a modern western discipline occurred in close associ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European nation states and the spread of nationalism. In particular, archaeology played a key role in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The current paper considers the case of Greek archaeology, which faced the task of recovering national pride and laying down the foundations of a new modern nation upon liberation from the Turkish Ottoman Empire. Therefore, the issu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dern nation state, nationalism, and archaeology is first examined, followed by a detailed survey of the process by which Greek archaeology came to be established and how it subsequently develop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nationalism, and archaeology, however, is apt to be problematic, as is observed through the case study on the debate surrounding Macedonia and the Vergina Star. It is believed that the case studies and issues relevant to Greek archaeology addressed in this paper will also provide insights for the practice of archaeology in Korea and indeed East Asia.

*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